

# 문화·엑스포·우주·관광이 광주·전남의 미래다



## 하늘에서 본 광주·전남 현재와 미래

바로 지금, 광주·전남엔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대안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수도,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광주광역시와 중흥사업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이 티끌거울 거의 마쳤다. 전남 서남부엔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사업인 J 프로젝트가 F1경기장 부지마련을 시작으로 시동이 걸렸고 고흥반도의 끝, 연륙된 나로도에는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나로우주센터' 공사 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그 옆 여수반도의 끝 아름다운 여수항은 2012년 세계 박람회 유치,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사람들은 광주·전남이 지리잡은 한반도 서남부를 '이끼놓은 땅'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낙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푸념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를 전환은 아껴놓았던 우리의 터전을 비로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는 힘찬 악동의 현장이다. 아리랑 2호 위성이 집은 광주·전남의 푸른강토와 디도해에 이들 4대 사업 현장의 고공영상과 미래상을 오버랩 해본다.

/홍필기·채희중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위성항·최현배기자 jrwi@kwangju.co.kr

## 2023 아시아 중심 광주, 문화 꽃피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오는 2010년 안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부지(3만5천746평)에 옛 전남도청 일대의 철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핵심시설인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을 7대 지구로 나눠 도시 자체를 재구성하는 마스터 플랜이다. 또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전당·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총 4조 8천여 규모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이자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및 주요 기능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설계에 대한 랜드마크 보란 논란은 문공부와 지역 사회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사업 대상지	옛 전남도청 부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
사업 기간	2004년~2023년
면적	3만5천746평의 문화전당 일대와 광주 전역
예산	4조8천772억원
기대효과	문화전당 건립과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문화·경제·예술 도시 구축

## 간척지 3천만평 세계적 관광·레저도시



J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해남 산이면, 영암 신포읍 일대
사업 기간	2006년~2025년
면적	3천만평
예산	36조원
기대효과	광주·전남의 관광·레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 관광지로 부상, 낙후한 간척지 개발의 초석

▲J 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오는 2025년이면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 3천만 평이 국내 최대규모의 관광·레저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골프장과 카지노를 비롯 요트항과 테마파크, 스카이라인 등 각종 볼거리·즐거거리가 들어서게 되며 특히 영암군 삼호읍 난전·삼포리 일대 간척지 130여 만 평에는 F1(포뮬러)국제자동차대회 경주장이 들어선다. 지난 2005년 8월 해남·영암지역이 관광레저특성개발지역 지정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전남도가 이 지역을 중국과 일본을 비롯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제규모의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기본 개발방안은 수립된 상태로, 이달 말께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F1경주장도 내년 말께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이면 한국 최초의 F1경주가 열린 전세계의 자동차 마니아들을 끌어모으게 된다. 15만 명이 상주하게 되는 J 프로젝트 지구는 2006~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되며, 총 36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 환경·과학 올림픽 '2012 여수 엑스포' 개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오는 11월 말 세계박람회 여수유치가 결정될 경우 오는 2012년 여수 신항지구 일대 43만 평의 부지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박람회가 개최된다.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 박람회에는 80개국이 참여하게 되며, 외국인 43만 명을 포함해 모두 795만 명이 이르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3일까지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현지 실사가 끝났으며,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에서 98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현재 모로코와 폴란드가 유력합을 하고 있다. 여수가 후보지로 결정되면 여수에는 1조7천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생산유발효과만 10조3000억 원에 이르는 9만 명분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지역적으로 보면 2012박람회는 여수가 '미래형 선진 해양 도시'로 반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도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세계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업 대상지	여수 신항 일대
사업 기간	2007년 11월 후보지 결정,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개최 기간
면적	43만평
예산	1조7천여원
기대효과	여수시의 리모델링 및 개발을 통해 전남 동부권 발전 견인

## 내년 10월 세계 9번째 위성발사 카운트다운



고흥 나로우주센터

사업 대상지	고흥군 봉래면
사업 기간	2003년~2008년 6월 준공, 10월 첫 발사
면적	1500평
예산	2천500억원
기대효과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고흥 나로우주센터=2008년 10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끝자락에 들어선 한국 최초의 위성발사장 '나로우주센터'. 지축을 흐르는 빙음과 함께 국내에서 제작된 100kg급 소형 기술위성이 땅을 박차고 우주로 향해 날아오른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며, 동시에 전남 고흥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정식 자리매김하는 날이기도 하다. 나로우주센터는 발사 시스템을 비롯해 발사통, 위성시동, 발사체 종합조립동, 고체 모터 동, 광학정비동, 우주체함관(교육홍보관), 추진 기관 시험동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주변 마복산에는 우주센터 주위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상관측소가 들어선다. 발사된 로켓과 위성의 비행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추적레이더와 원격자료 수신 장치를 갖춘 제주추적소도 지난해 말 남제주군 표선면에 들어서 시험가동 중이다. 현재 각종 장비들이 속속 반입되고 있으며, 발사대를 제외한 전체 토목·건축 공정률도 98%에 이른다. 산 중턱을 깎아 만든 1255천여 평 규모의 발사장에 발사대가 세워지는 것을 끝으로 2008년 6월께 나로우주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으로서, 진정한 우주주권을 확보하게 된다.